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외세의 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주체36(1947)년 11월 19일 깊은 밤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조선에 대한 음흉한 침략적야망을 드러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동무도 아는바와 같이 미제가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려고 할 때 쏘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은 조선에서 쏘미량군을 동시에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인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세계민주력량의 강력한 규탄에 의하여 음흉한 목적을 실현할수 없게 된 미제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총회에 상정시키고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함으로써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의 《결정》을 실행한다는 명목하에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본격적으로 감행하려고 하였다.

미제는 《민주의원》, 《립법의원》, 《남조선과도정부》 등 간판을 바꾸어달고 친미친일분자들과 민족반역자들에게 그 무슨 통치권의 일부를 넘겨주기나 하는듯이 《행정권이양》놀음까지 벌리면서 제놈들의 정체를 감추려고 책동하다가 이제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내세워 조선을 영구분렬시키려는것이였다.

이에 대해 언급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문가로 다가가시여 잠시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가슴아프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인민이 과거 근 반세기동안이나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비참한 노예생활을 강요당한것만 하여도 억울하기 그지없는데 오늘 미제가 또다시 우리 인민을 저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책동하니 이것을 어떻게 참을수 있겠습니까.》

선전부장도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가 없어 말씀드리였다.

《미국놈들이 정말 파렴치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연한 어조로 우리는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의 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여야 하며 그 진상을 세계의 공정한 여론앞에 폭로하여야 한다고, 그리하여 침략자로서의 미제의 추악한 면모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시였다.

《미제가 조작해낸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비법성과 그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는 무게있는 글을 써서 방송으로 내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글을 동무가 쓰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인민들은 미제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한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우리 당의 목소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렇게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원고집필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우선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대표도 참가시킴이 없이 우리 민족내부문제를 일방적으로 유엔에서 토의결정하게 한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일뿐 아니라 완전히 비법적인 행위라는것을 론리정연하게 발가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라는 내정간섭도구를 조선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까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는 투쟁과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집필방향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글을 오늘 밤중으로 써서 래일 방송으로 내보내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밤을 새워서라도 꼭 보장하겠습니다.》

신심에 넘친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글을 쓰는 일이 쉬운것은 아니지만 우리 일군들은 누구나 다 글을 쓸줄 알아야 한다고, 글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투쟁의 무기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며 방송원고를 다 쓰면 자신께서 한번 보아주겠다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선전부장은 밤새워 원고를 집필하였다.

원고집필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수정가필까지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미제가 조작해낸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비법성과 그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는 무게있는 방송이 다음날 저녁에 나가게 되였다.

이것은 조선을 영구분렬시키기 위해 미쳐날뛰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본사기자 황 금 숙

해외동포들의 애국의 마음이 어린 충성비

공화국에는 재일동포들의 애국심이 깃든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다.

그 모든 창조물마다에는 재일동포들의 애국지성을 조국청사에 길이 전해주시려는 절세위인들의 한량없는 은정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알몸이나 다름없는 처지로 일본땅에 건너가 콩나물을 실은 손수레에 생을 걸어야 했던 동포들, 초라한 가게방이나 음식점을 차려놓고 온갖 민족적모욕과 멸시를 피눈물속에 감수하며 시시각각으로 덮쳐드는 파산의 위험속에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던 재일조선상공인들을 총련의 두리에 묶어세워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재일동포상공인들에게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본동력, 주력군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국을 위해 바치는 지성이 이 땅에서 활짝 꽃펴나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였다.

주체62(1973)년 5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총련결성 18돐을 맞으며 첫 재일동포상공인조국방문단 성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자신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재일동포상공인들을 제일 사랑한다고, 재일동포상공인들이 조국에 기여하는 돈이 많은가 적은가, 나라에 보탬을 크게 주는가 적게 주는가 하는것보다도 조국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그 애국정신이 귀중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애국적상공인, 진보적상공인이라는 값높은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주체71(1982)년 1월에는 사회주의애국상도 제정해주시고 높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총련애국사업에 물질적으로 크게 이바지한 재일조선상공인들에게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특색있는 기여를 할 때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믿음은 얼마나 큰것이였던가.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일념으로 애써 마련한 설비들에 《애국》이라는 값높은 칭호와 함께 기증한 동포의 이름까지 밝혀주도록 해주시고 공로가 많은 동포상공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조국에 불러 크게 환영도 해주고 병치료도 받도록 하시였으며 조국의 명승지에 가서 푹 휴식하라고 특별비행기까지 보내주신 그 은정과 보살피심속에서 동포들의 애국공적은 더욱 아름답게 수놓아졌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이 마련해보낸 공장은 물론 직장들에 이르기까지 충성비를 세우고 거기에 기증자들의 이름을 새겨넣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동포상공인들은 실지 생활체험으로부터 자기 조국과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에 량심과 지성을 바쳐나가는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상공인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참된 애국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참으로 그것은 동포상공인들이 받아안을수 있는 믿음중의 가장 큰 믿음이였고 칭호중의 가장 고귀한 칭호였다.

정녕 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총련의 동포상공인들이 애국의 보람찬 한길에 너도나도 떨쳐나서게 하는 원동력이였으며 그들의 한생을 조국과 민족이 기억하는 참된 삶으로 꽃피워주는 따사로운 해빛이였다.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지성의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더욱더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련상공인들과 재일동포들이 조국에서 경제활동을 실리있게 벌릴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을뿐만 아니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바쳐가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적삶을 조국청사에 아로새겨 빛내여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대한 사랑에 고무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며 어머니조국의 대지우에 자랑찬 애국의 충성비를 높이 쌓아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속에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진 재일동포들의 지성은 《애국》의 부름과 더불어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전 영 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2월 1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천명하신 2023년도 사업의 총적방향과 중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김호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은 우리 국가의 부흥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의 길을 명확히 밝힌 가장 과학적인 실천강령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특히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밝혀진 대미, 대적대응방향은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투쟁방략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과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전체 당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에 적극 불러일으킬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주요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2월 2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 전원회의에는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평양시와 지방의 당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새해사업의 총적방향과 제반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은 우리 국가의 부흥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의 길을 명확히 밝힌 가장 과학적인 실천강령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미, 대적대응방향은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투쟁방략으로 된다고 하면서 모든 당원들이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과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전인민적인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천도교청우당이 수행해야 할 주요목표와 실현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치욕의 력사를 찬미하려는 광대극

지금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역적패당은 올해가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체결 70년이 된다고 하면서 그 무슨 상징물을 만든다, 서울 룡산에 미군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건립한다 하며 역겹게 놀아대고있다.

그야말로 친미사대매국을 생리로 하는 천하역적의 해괴한 추태이다.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는 침략자, 강점자가 어떻게 《우방》으로, 《동맹자》로 될수 있단 말인가.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동맹》관계란 실지에 있어서 상전과 주구사이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 굴종관계이다. 그것이 《강화》된다는것은 곧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이 더욱 심화되고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보다 더 가중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실 미국이 남조선을 70여년간이나 군사적으로 강점하고있으면서도 그 무슨 《동맹》에 대해 떠드는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해서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그 무슨 《북핵 및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남조선과의 《동맹》강화에 대해 입이 닳도록 떠드는것은 남조선을 저들의 손아귀에 더욱 든든히 틀어쥐고 반공화국압살과 침략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친미사대굴종의 길로 나가고있다.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치고 친미사대에 물젖어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자가 없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선임자들을 훨씬 릉가하는 특등매국노들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집권전부터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역설해온 역적패당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미국상전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재개 및 확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 《확장억제전략협의체》재가동 등을 모의하였다. 한편으로는 그 무슨 《가치동맹》에 대해 떠들며 남조선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천년숙적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설것을 강요하는 미국의 강도적요구도 받아물었다.

특히 역적패당은 미국과 각종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리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매달리는 역적패당때문에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고조되고있다고 하면서 역적패당을 강하게 비난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외세에 빌붙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우리 민족의 주적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얻을것이란 수치와 파멸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쓰라린 과거와 70여년간의 미국의 남조선강점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친미사대매국에서 살길을 찾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머지않아 저들이 명줄로 여기는 미국과의 《동맹》, 친미사대가 비참한 종말을 초래하는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몸서리치게 깨닫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남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한 미 동 맹

핵위협의 장본인, 그 죄악의 력사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핵무기반입을 공포한 때로부터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알려진것처럼 1957년 7월 15일 남조선강점 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선포한 미국은 그해 10월중순 일본에 있던 미기갑사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미제 24사단과 통합하고 《원자사단》으로 개편하였다.

뿐만아니라 1958년 1월 《오네스트죤》핵미싸일이 남조선에 배치되였다고 공식발표한데 이어 2월에는 의정부에 있는 미군비행장에서 이 핵미싸일과 함께 280㎜ 원자포를 공개하였다.

1960년대에는 《나이키 허큘레스》, 《마타돌》, 《호크》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원자 및 유도무기들과 핵지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책동은 비핵국가와 지역에 핵무기를 반입할수 없다는 국제적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되였다. 1975년 5월 30일 미국회 하원에서 있은 1976년도 국방예산심의회의에서 남조선에 1 000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책동으로 남조선은 미국의 각종 핵미싸일과 핵폭탄, 핵공격수단들이 꽉 들어찬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을 저들의 핵무기전시장으로 만든 미국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끊임없는 북침핵전쟁연습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였다.

미국은 제2조선전쟁각본들을 전부 핵선제타격을 기본방식으로 하는 작전계획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수정보충하여왔다. 미국이 1950년대중엽에 벌써 북침핵전쟁계획인 《8－53》, 《10－54》를 작성하였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70년대의 《5일전쟁계획》과 《9일전쟁계획》, 《핵전쟁비상계획》, 1980년대의 《3일작전계획》, 1990년대의 《작전계획 5027－98》, 그 이후의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5》 등 모든 북침작전계획들은 철저히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여 작성된것이였다.

미국은 이러한 북침핵전쟁계획에 따라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그칠새없이 광란적으로 벌려왔다. 지난해에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윤석열역적패당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북침핵전쟁연습들을 미친듯이 벌렸다.

제반 사실들은 조선반도에서 진짜 핵위협의 주범, 핵범죄집단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오늘도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방대한 핵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핵전쟁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책동의 돌격대로 나서서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온 천하역적들이 다름아닌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이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은 《선제타격》이니, 《압도적대응》이니, 미국과 핵자산의 공동운용과 관련한 《공동계획》, 《공동실행》이니 하고 공공연히 떠들며 핵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해 분별을 잃고 날뛰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저들의 범죄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그 누구의 《핵문제》, 《핵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의 친미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전쟁책동을 반대배격하면서 반미, 반전, 반윤석열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휘두르며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 공화국은 세계최강의 핵보유국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랐으며 공화국의 군사적강세는 날로 고도화되고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바로 이것이 공화국의 억척불변의 립장이며 선언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상대가 누구이고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것을 이제라도 똑바로 가려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 영 진